

광주시-자치구, 상생협력 손 잡았다

이용섭 시장·5개 자치구청장, 올해 첫 상생회의 개최

시정방향 설명·주요 현안 협의...“힘차게 함께 도약하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9일 오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광주시·자치구 상생회의 참석해 광주시 5개 구청장들과 도시민 상생 협력을 다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내 남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임택 동구청장, 이용섭 광주광역시 시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광주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5개 자치구청장은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4차 시·자치구 상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0 시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광주시와 자치구 주요 현안을 협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지난 1

년 6개월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부터는 일자리 창출, 소득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올해는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광주시대를 열어 광주를 대한민국의 정치1번지에서 경제1번지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실현 ▲노사상생의 (재)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건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경제자유구역 지

정을 통한 대대적인 투자유치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세계화 ▲광주전남 상생협력 등 2020년 20대 핵심시책에 대해 소개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또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의 모습은 청년들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사람과 돈과 기업이 찾아오는 광주를 만드는 것이다”며 “시민들이 ‘나는 광주에 산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와 자치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령 준수를 위해 연초 자치구 방문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5개 자치구청장은 올해 광주 시정방향 실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또 이용섭 시장 주재로 당면 현안을 협의했다. 먼저 광주시는 ‘정의로운 광주 실현을 위한 범시민운동 추진’ 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의로운 광주 실현을 위한 범시민운동’은 안전, 대중교통 등 10대 실천과제를 캠페인,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자치구별 계획을 세워 시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자치구는 ‘광주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 건의’와 ‘생활폐기물 문제 해결 위한 거버넌스 구성 건의’ 등 2건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이들 안전에 대해 담당부서 검토와 해당 자치구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올해 광주시와 자치구가 광주의 양 날개가 되어 힘차게 도약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전남도, 올해 환경친화형 축산 육성 위해 2733억 투입

쾌적한 환경·품질 고급화 등 4대 과제 추진

전남도는 2020년 환경친화형 축산 육성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국비 446억원을 포함 총 2733억원을 들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도는 올해 ‘환경친화형 축산 실천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친화형 축산기반 구축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축산물 품질 고급화 △미래 성장산업 육성 및 축산농

가 경영안정 도모 등 4대 세부추진 과제를 실천할 계획이다. 추진 과제별로 환경친화형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382억원,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200억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인증 40억원 등 5개 사업에 786억원을 지원한다. 또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지원 109억원, 축산 악취 저감제 공급 60억원, 축산

농장악취 저감 시설 지원 15억원, ICT 기반 악취 측정장비 5억원,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12억원 등 6개 사업에 204억원을 지원한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953억원 △가축 유통시설 현대화 17억원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20억원 △축산물 이력관리 13억원 △한우 품질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 11억원 △축산물 가공·유통 시설 설치 35억원 △한우 등록 8억원 △한우 광역브랜드 유통 활성화 29억원 등 9개 사업에 1060억원을 투자한다. 축산 분야 미래 성장산업 육성

및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도 팔발산업 육성 22억원, 말산업 육성 37억원,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산업 육성 30억원, 곤충산업 육성 7억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60억원, 낙농가 착유시설 개선 15억원, 학교우유급식 62억원, 농가 시료구매자금 400억원 등 24개 사업에 683억원을 지원한다. 김경호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환경친화형 축산 실천을 통해 전남이 친환경 축산의 1번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및 축산물 품질 고급화, 축산농가 경영 안정 도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 구분 | 고소득층 | 중위 | 3분위 | 4분위 | 저소득층 |
|----|----------|----------|---------|---------|---------|
| 비율 | 1.1배 | 1.7배 | 2.1배 | 2.7배 | 5.3배 |
| 금액 | 240,833원 | 125,531원 | 79,147원 | 48,103원 | 26,697원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동구, 24년만에 복싱선수단 재 창단

광주 동구가 해체 24년 만에 ‘직장운동경기부 복싱선수단’을 재 창단했다. 1990년 창단됐던 동구 복싱팀은 구의회에서 재정여건을 감안, 당시 직장운동경기부로 운영 중이던 정구부와 복싱부를 1개로 축소하라는 지적을 받아 1996년 해체운명을 맞았다. 그러다 지역의 우수 복싱인재 타 지역 유출을 우려하는 광주시복싱협회의 지속적인 요청과 지역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엘리트 체육인 육성을 위해 복싱선수단 재 창단에 나섰다.

서구 “평생학습관 동아리실 무료 대관 신청하세요”

광주 서구가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평생학습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두드림(DoDream)서구 평생학습관 동아리실을 무료 개방한다. 장소는 서구 두드림(DoDream)서구 평생학습관(화정2동 주민센터 지하)이며, 이용 기간은 2020년 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동아리별 일주일에 2시간 이내로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대상 조건으로는 7인이상 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생학습 동아리로 관내 거주자 60% 이상, 월2회 이상 정기적인 학습모임이 이뤄져야 한다.

남구, 시내버스 유계 승강장 전수조사 실시

광주 남구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의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붕 형태로 설치된 관내 유계 승강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9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관내 시내버스 유계 승강장 163곳에 대한 일제 조사가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시내버스 승강장 내에 설치된 의자와 바람막이용 유리 등의 파손 여부이며, 노후화된 방향 안내 표시와 불법 광고물도 정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승강장 주변과 지붕 위 낙엽 등 이물질 제거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북구, 2020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광주 북구가 “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높이고자 실시되며 4월 15일 차르게 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점검 조사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보건복지부 허브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에 대한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광산구, 우산동 작은도서관 재개관

광주 광산구 우산동은 지난 9일 ‘우산동 작은도서관’이 2개월간 단장을 마치고 재개관했다고 밝혔다. 우산동 작은도서관은 국비 7,000만원, 시비 1,500만원 등 총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프로그램실 재구조화, 열람실 설치 등 내부 단장을 마치고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했다. 특히, 개방형 구조의 책놀이터를 신설하여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우산동 작은도서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